

남가주 교협, 사랑의 나눔으로 회기 시작



남가주 교협이 코리아타운에서 타민족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기독일보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제임스 조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이 사랑의 나눔 행사로 제 51대 회기를 시작했다.

남가주 교협은 지난 5일 다운타운 노숙자들과 코리아타운 타민족들에게 마스크와 담요, 슬리핑 백, 목도리, 양말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1만장 분량이었으며 담요와 슬리핑 백 500개, 목도리와 양말 등은 추운 겨울을 나아 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다.

남가주 교협은 오는 성탄절을 전후로 제 2차 사랑의 나눔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음력 설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올 한해 섬기고 일하는 교협이 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이웃 섬김과 지

역 교회 부흥에 힘써 남가주 교협의 위상을 재고한다는 방침이다.

제임스 조 목사는 “교협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필 수 있어 감사하다. 올 한 해 ‘소통하는 교협’, ‘열심히 일하는 교협’이 되겠다”며 “복음 전파와 지역 섬김을 위한 일에 남가주 모든 교회가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가주 교협은 내년도 비전을 “주님처럼 일하며 섬기며 소통하는 교협”으로 삼고 오는 21일(월) 회장이 취임식에 이어 내년 1월에는 마틴루터킹데이를 기념해 한·흑 화해행사와 소강석 목사 초청 부흥 세미나, 교회 법률 세미나를 주최할 계획이다. 2월에는 대전 열방교회 임재택 목사를 초청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DNA 전도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트럼프 “‘메리 크리스마스’ 제거 시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랑스럽게 말한다(We say MERRY CHRISTMAS proudly again!)”는 글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연설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는데,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약 한 달 앞두고 그가 이날 현지 남부 발도스타(valdosta)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한 연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소망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다. 이 말(메리 크리스마스)을 기억하라. 우리는 5년 전에 “당신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말하고 그것을 다시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비록 그들이 그 말(메리



트럼프 대통령 부부 ©백악관(White House)

크리스마스를 사전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에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Happy

Holidays)라는 말을 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배려하지 못하는 인사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한층 강화된 목소리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의 역사를 무시한 것이고,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하기 원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 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었다.

김진영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LA카운티 자택대기명령, 교회는 면제... 예배 모임 허용”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회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새로운 자택대기명령(stay-at-home order) 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미국 보건부의 새로운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집에 머물고 향후 3주 동안 집 밖의 누구와도 만나지 말라고 권고했다. 모든 개인·공공 모임은 금지되지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예배 모임은 (이 명령에서) 면제된다.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회장이자 설립자인 브래드 데이커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면제는 최근 대법원이 교회에 대한 제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이커스 회장은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사업을 포함한 다른 세속적 단체보다 예배당을 더 제한할 수 없다”라며 “이 명령의 면제 대

상에 교회가 포함되는 이유는 항공사와 같은 필수 사업 중 일부는 팬데믹 이전처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항이 비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받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교회와 회당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배는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야외에서 열어야 하지만 참석자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 참석에 제한이 없다.

카운티의 임시 명령에 따라 필수 소매업은 수용 인원을 35%로 제한해야 하며 불필요한 소매업은 20%로 제한된다. 박물관은 수용 인원 50%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는 야외에서 50%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양성사례 숫자는 현재 41만4천185명으로 7천740명이 사망했다고 CP는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같보리 채플 산 호세 목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산호세 그레이스 침례교회 ©페이스북

사를 포함해 실내 예배를 위해 재개된 교회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데이커스 회장은 “로스앤젤레스가 벌금과 수감 등을 통해 실내 예배를 중단하라고 위협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예배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교회를 폐쇄하려는 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대법

원의 판결은)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종교 자유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카운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교회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잘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속 기업보다 코로나19 전파

로부터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방역 활동을 해왔다.

데이커스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미 전역에서 교회가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재개를 요구하는 교회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광범위한 법적 원칙을 인용하며, 교회 재개를 엄격하게 반대한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은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모든 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신하여 어떠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가까이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종교 자유와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사이의 갈등은 종교 자유에 우호적으로 결정되었다. 향후 사건은 신자들의 권리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제 교회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미 전역의 지역 사회와 주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신간]디어 갓(DEAR GOD) 영성훈련을 위한 40일 기도묵상집



총 120일간, 하루 5분 말씀과 기도 영성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한영 기도 묵상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라

다. 출근길이나 일 상 중에 잠시 읽어 도 하나님 뜻에 합 당한 바르고 깊은 기도를 할 수도 록 했다.

LA 비전교회와 GMCC 선교회를 섬기는 김대준 목사가 최근 ‘디어 갓(Dear God 부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을 출간했다.

목회자와 가정의 마음으로 쓰여진 ‘디어 갓’은 성도들과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영적 관리를 위해 매일 새벽 말씀 묵상과 설교를 통해 요약한 기도문을 발송한 것이 책을 출간한 계기가 됐다.

신간 ‘디어 갓’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짧고 함축되어 있다. 잠시 혹은 종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깊은 내용의 기도문이

김대준 목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매일의 짧은 묵상을 통해 성도들과 자녀들의 영적 성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간 ‘디어 갓’은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각 40일간의 기도문(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로 목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고, 새해 매일 5분씩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관계를 훈련하기에 좋게 구성되

어 있다. 특히 교회에 지속적으로 오기 어려운 환경가운데에 있는 이 들이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녀 들, 또는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 묵상훈련에 도움이 될 만하다.

저자 김대준 목사는 1992년부터 중국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0년부터 LA에서 한인교회 목회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월드미션대학원(WMU)에서 신학사와 목회학 석사를 마쳤고, 현재 LA 비전 교회와 GMCC 선교회를 섬기고 있다.

문의 213) 291-5072



GMU 겨울 특강 “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기회”

미주한인신학교로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교인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ACSI)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인 “교육의 기독교 철학(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수업을 위한 겨울 특강을 개설하고 사립 학교 교사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

사립 학교 교사 자격(ACSI)은 현재 미국 내 3,300여 곳과 전세계 100 여 국 24,000여 곳의 사립학교가 인정하는 자격이다.

겨울 특강은 내년 1월 4일(월)부터 16일(토)까지 2주간에 인텐시브 형식으로 진행되며 월, 화,목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부터 4시까지 줌화상 강의 방식, 통신 방식, 토요일 대면 미팅 방식 등 하

이브리드도 제공된다.

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사립학교 교사 자격증은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미국 내 기독교 및 해외 선교지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격 인증(Certificate)을 받는 절차이며,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신조에 관심을 가진 모든 평신도, 교육자, 선교사, 신학생, 등에게 필요한 도전”이라며 “GMU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온 캠퍼스와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방식 등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소개했다.

GMU는 ACSI 에서 제공해 주는 있는 자격증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주요 자격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자격 및 원장, 디렉터, 교감, 화,목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부터 4시까지 줌화상 강의 방식, 통신 방식, 토요일 대면 미팅 방식 등 하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L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무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 해당하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ier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하비스트 락 교회, 종교의 자유 침해 캘리포니아주 상대 승소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 제한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잠정적 구제를 허가했다.

‘하비스트 락 교회’(Harvest Rock Church) 등은 개인 뉴스(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3일 판결을 통해 지방 법원이 내린 교회 패소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며, 교회에 대한 ‘필수적 구제’를 제공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근거로 최근 뉴욕주 사건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뉴욕주가 로마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 공동체를 상대로 집합을 제한하는 것을 저지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의 구성원들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 특별한 전문 지식과



하비스트 락 교회 চে 안(Ché Ahn) 담임목사, ©Harvest Rock Church

책임감을 가진 이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 와중에도 헌법이 소홀하게 여겨지며 잊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의 집합 제한령은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에 나타난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덧붙였다.

美 대법, ‘예배 제한 반대’ 교회에 임시적 구제 허가

지난 7월 다수의 회원 교회가 속한 하비스트 락 교회와 하비스트 인터내셔널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 제한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0월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은 이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라며 2대 1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이번 명령은 교실이나 영화관 같은 다른 실내 모임이나 행사에도 교회와 똑같은 집합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카운티에서 콘서트 참석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단체 활동은 완전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아뮤드 오스카네인 순회 재판관은 18개 카운티에서 교회는 대부분의 세속적 단체보다 엄격

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들 카운티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실내에서 쇼핑하고, 미용을 하고,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하고, 대학 수업을 듣거나 TV쇼나 영화를 제작하고, 프로 스포츠에 참석하고, 세탁소를 이용하고, 심지어 육류 포장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공중 보건에 대한 긴급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특징하고 계산된 중립적 집합 제한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정부가 종교 행위에 대해 비교 가능한 세속적 활동을 대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추구하려고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월드미션대 김경준 교수 “성경은 뇌과학 부정하지 않아”



김경준 교수 ©유튜브 영상 캡처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서 발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가 최근 ‘기독교상담과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제35차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경준 교수(월드미션대학교)가 ‘기독교상담에 뇌과학적 지식의 활용: 불안과 우울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기독교상담학계에서는 뇌과학의 급진적인 발전을 반영하여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미국 기독교 상담자 협회(AACC: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에서 매년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찾을 수 있다”며 “2020년 9월에 COVID-19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AACC 컨퍼런스에서의 첫 번째 주제 강연을 ‘Change Your Brain: Change Your

Life’ 라는 유명한 책 이외에도 수많은 뇌과학에 관련한 책들을 저술한 다니엘 에이멘(Daniel G. Amen)박사가 맡았다는 점과 또한 컨퍼런스 중에 별도로 유료강좌로 진행되는 6개의 집중 과정 중 하나가 ‘뇌 건강, 신경과학과 상담치료’라는 주제였다. 여기서 기독교상담 영역에서 뇌과학을 빠른 속도로 접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상담학에 심리학적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여러 관점들이 존재해 오고 있다”며 “설명수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상담과 심리학은 별개의 서로 다른 철학과 같이 서로 대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아예 심리학 지식은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뇌과학의 경우에는 어떠한가”라며 “뇌과학의 경우 최첨단의 뇌영상 장비와 고도의 의학, 생물학 및 생화학의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뇌과학을 사이버 과학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상담자들도 뇌과학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자들은 이러한 뇌과학의 지식조차도 성경의 잣대를 통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며 “스코틀랜드의 세

인트 앤드류 대학의 저명한 신경심리학자인 말콤 지브스(Malcolm Jeeves)는 뇌과학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열정적이면서 비판적인 개방성(enthusiastic and critical openness)’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브스 박사는 기독교인들이 무비판적으로 뇌과학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물질주의적 환원주의로 귀결시키는 일부 과학자들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상담자들은 뇌과학적 지식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성경은 결코 뇌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존 오트버그(John Ortberg)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신경과학에 대한 기사가 사무엘상 17장 49절이라고 언급했다.(Ortberg, 2014) 바로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던져 골리앗이 죽사했다는 장면”이라고 했다.

또 “재활신경심리학자인 레오나드 매세슨(Leonard Matheson) 박사는 뇌과학은 성경이 인간은 완전

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뇌를 포함하는 육체와 영혼이 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며 “제2세대 성경적 상담학자로 분류되는 밥 켈러멘(Bob Kellemen) 박사는 상담에 있어 성경에 근거한 전이적인 접근을 하는 기독교상담자로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28 절의 문화명령(Creation Mandate)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의 질서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학문들을 반드시 포용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감정과 접촉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나,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적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 용서를 촉진하는 것을 돕는 일 등은 모두 뇌의 가소성을 통한 뇌 기능의 회복과 건강한 새로운 신경회로를 생성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울증의 증상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굼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굼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성신대 명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언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교회), 신정민목사(복음선언대 대표), 유관지목사(영일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메리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굼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은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북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요,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www.gs.edu/keb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5

“신학교를 사랑하는 현지 동역자들에게 받는 감동”

지난주에 학교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왔다. 훌라비오 목사님 사모님의 전화였다. 우리 신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훌라비오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남은 가족은 사모님과 2남 1녀이다. 자녀들은 회사원, 의사, 변호사 등으로 다 성장하여 자기 직업을 갖고 있다. 사모님은 현모양처이시다. 참 다복하고 화평한 가정이었다.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재에 있던 책들을 어떻게 할까 자녀들과 의논한 끝에 목사님이 10여년간 신학을 가르치셨던 우리 신학교에 서적을 전부 기증하고 싶다는 말씀이었다. 감사로 받겠다고 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곧바로 학생회 임원들에게 전했고, 다음 날 오후 학과 후에 필자는 책과 책장을 가져 올 학생들과 함께 사모님 댁을 찾았다. 추리고 추린 책들로 신학교에 필요할 만한 책이 800권이였다. 큰 책장 2개와 함께, 사모님과 자녀들은 목사님이 평생 보시던 서적들과 책장이 방 안에서 들려져 나올 때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필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학교는 목사님을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 갈 것입니다. 기증하신 책장과 책들은 학교 도서관에 잘 보관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읽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목사님을 기억하시면서 도서관을 보세요.” 필자의 말을 들으면서 가족들은 기뻐하였다. 그리고 받아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렇게 기증받은 책들을 학교 도서관으로 가져왔다. 우리 학교 학생회 안에는 도서관 위원들이 있다. 남학생들은 목사님의 두 책장을 기존의 도서관 책장과 같은 색깔의 페인트를 구입하여 새 칠을 하였다. 도서관의 한쪽 벽면에 기증받은 책장과 새로 구입한 책장들이 이어져 책들을 정리하였다. 도서관 위원들이 밤을 꼬박 새우며 책들을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번호 테이프를 붙이며 작업을 하였다. (그 작업 사진이 지난주 칼

럼에 일찍 나가 버렸다).

학생회에서는 훌라비오 목사님의 가족들을 12월 24일 저녁 성탄 전야 예배에 초대하였다. 가족들은 흔쾌히 승낙하였다. 또한 학생회는 목사님과 사모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리기로 하고 멋진 감사패를 준비하겠다고 결정했다. 도서관의 기증받은 책장들이 놓인 위쪽에 “훌라비오 목사님이 기증하시다” 라고 명패를 써서 계속 기념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학생들의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사를 알고 기억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 크다는 칭찬을 하였다. 그렇게 지난주는 도서관의 풍성한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다.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학교로 또 한통의 전화가 왔다. 우리 학교를 지난 20년간 후원하고 있는 피닉스 히스패닉 교회의 장로님 전화를 받았다. 지금 YUMA 지역을 통과하는데 신학교 큰 벤차량을 가지고 국경 너머 미국 쪽 어느 교회로 1시간 후까지 오라는 통고였다. 어느 회사의 오피스에서 제공받은 2차형 큰 책상들을 3세트나 신고 온 것이다. 우리 학교까지 가지고 오려했으니 예상 시간보다 너무 많이 걸려서 빌린 차량을 오늘 반납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에게 나와 달라 한 것이다. 기쁨으로 달려갔다. 너무도 좋은 필자가 한번 사용하고 싶었던 책상 세트를 받았다. 감사로 받고 코로나로 인해 맛있게 점심을 야외에서 나누고 헤어져 돌아왔다.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한 청년, 세 분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책상을 주기 위해 왔다 다시 6시간에 걸쳐 돌아갔다.

지금 필자는 새로 받은 그 책상에서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이 칼럼을 쓴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0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위대한 인간선언 현장 루스드라를 찾아서”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찾아간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방문했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 빌립보와 더불어 회당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10명도 살지 않았던 완전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스드라의 선교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남긴 설교는 선교신학적으로 소중한 자료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루스드라는 더베와 더불어 루가오니아 지방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루가오니아는 동으로 갑바도기아, 북으로는 갈라디아, 남으로는 길리기아, 서로는 비시디아와 부르기아 등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용맹스럽고 호전적이어서 많은 외침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져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로마시대에는 버가모왕에게 다스리도록 했지만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이후 북부지방은 갈라디아에 동부지방은 갑바도기아에 남부지방은 길리기아에 분할되었고, 사도시대에는 갈라디아의 속주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루가오니아 언어는 사라지지 않고 존속했으며 바울이 다리 불구자를 고쳤을 때 루가오니아 방언이 통용됨을 언급합니다. 루가오니아어는 6세기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은 처음에는 셀류커스 왕조에, 그 다음에는 아칼루스 왕조에, 마지막으로 모라인에게 복속되었습니다. A.D 6년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함께 루스드라와 더베를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 새겨진 비석이 이고니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고니온(콘야)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루스드라의 위치는 1885년에 발견된 비석에 의하여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비문에 의하여 루스드라는 하툰사라이의

북쪽 언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졸더라(Zoldera) 혹은 조르둘라 휘윅(Zordulahuuyuk)으로 알려진 언덕은 B.C. 3000년 - 2000년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루스드라는 하툰사라이 남쪽과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제공하는 충분한 물로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업의 발전하였습니다. 상업적 발전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루스드라 남쪽 지역에 사는 로마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루스드라에 군대를 배치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로마가 루스드라 지역을 지배할 때에 황제는 비시디아 지역에 비아세바스테(Via Sebaste)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이고니온에 연결되었고 이어서 루스드라와 더베, 길리기아로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여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식민지를 로마화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들이 만든 도로들이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점에 바울의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도로망과 언어(헬라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경청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이 기적의 현

장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칭송합니다. 심지어 두 선교사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두 선교사가 옷을 찢고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외칩니다.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인간선언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받자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모입니다. 이 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며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선언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으며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때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장에서는 이런 위대한 인간선언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며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이것은 그 지방에 있던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 모습으로 브루기아 산지를 방문했었는데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러나 초라한 오두막에 살던 빌레몬(Philemon)과 바우시스(Baucis)라고 하는 늙은 농부 부부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후히 대접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이 농부 부부에게는 후히 보살했지만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던 다른 집들은 흉수로 쓸려 버렸습니다.

이 전설 때문인지 루스드라 시민들은 신들의 방문인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희생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909년 램세이(W. Ramsay)는 이 성읍 부근에서 토박이 루가오니아인이 제우스와 허르메스 신상에 바친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신화와 우상이 점령했던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현재 이 곳에는 초대교회 때 교회로 사용했던 두 군데의 동굴 교회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교회 언약” 청교도 신앙의 기초

청교도의 언약 사상과 실제적인 실행방법들은 뉴잉글랜드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1638년과 1643년에 제정된 잉글랜드의 “국가언약”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언약사상이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언약문서들에 주요 지도자들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서명했다고 하였다.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에 저항하면서, 국가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고 건전한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사상을 사회정치적으로 적용하고자 분투 노력했고, 마침내 전제군주를 처형하고 올리버 크롬웰이 정치를 펼치는 “청교도혁명”을 이루었다.

초기 뉴잉글랜드 이민자들은 그들이 떠나 온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언약사상을 그대로 간직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도 국가언약을 잊지 않으려는, 더 뜨거운 심장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잉글랜드에서 체험했던 청교도들의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고자했던 열망이 그들의 심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영국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젊은 대학생들은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지역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열렬히 토론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초기에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것들은 오직 성경에만 의존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교회언약”(church covenant)이 강조되었다. 새로운 땅에서는 완전히 성경적인 교회를 건설하는데 집중했고,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했다. 교회가 최우선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약속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개념으로 자리 매김을 했다.

“교회언약”을 중시했던 뉴잉글랜드에서의 교회의 형태는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중교회 모습이었다.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예섹스 지방, 데드햄에서는 설교자들의 회합을 열어서 그들이 만나는 성도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경건한 설교의 기회들을 논의했다. 그리고 주일성수를 강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 지역에서는 “말씀 강좌”라는 모임을 통해서 교수들이나 저명한 목회자들이 지역

의 교구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강단 설교의 진수를 전달했다. 이런 날에는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평신도들도 신앙과 윤리의 문제를 놓고서 조직화된 토론모임을 이어갔다. 성경의 진리를 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이들이 높고 더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모두 다 평등했다. 일부 지도자들은 월등한 감화력과 설득력을 발휘했지만, 주교나 대주교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명령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 뉴잉글랜드에서 그대로 펼쳐졌다. 윈트롭에 이어서 도착한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 1633), 존 데븐포트(John Davenport, 1637), 휴 피터(Hugh Peter, 1635) 등은 지방 도시에서 함께 모여서 협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은 새로운 기초이자,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사역이었다. 게다가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네덜란드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했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가미되어졌다.

“교회언약”(church covenant)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들의 엄숙한 신앙서약과 맹세가 뒤따랐다. 교회 언약의 실제적인 시행은 물론 세례와 성찬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칼빈의 성례론을 따라서 성경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조되었다. 우선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며,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바르게 교육을 받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단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사역을 하는 영적인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신도 피택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신도 함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상적으로는 교회가 두 명의 목사를 갖고자 했는데, 평상적인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심방하는 목회목사와 교리를 분별하여 설명하는 신학적인 교사 목사를 갖고자 했다.

청교도들이 교회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교회의 자치권과 독립성이다. 존 코튼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바, 각 회중마다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면, 그 회중을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회를 지배하는 그 위에 높은 기관이나, 혹은 교황청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란 있을 수 없었다는



John Eliot: The Man Who Loved The Indians

말이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로마 가톨릭과 잉글랜드 국가교회 체제를 완전히 거부하는 구조를 실행에 옮겼다.

다만 회중교회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회중교회 체제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처럼 각 지역교회가 자체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면, 가히 무제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리가 나올 수 있다. 교회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결정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무정부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인 경건을 입증하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해서 성도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목회자들을 선택하였다. 초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교회 구조를 살펴보면, 말을 하는 소수의 귀족적인 지도자들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의 성도들로 구성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서로 결합해 있었다. 회중들은 목회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로 임했고, 절제된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이 큰 역할을 했다. 보이지 않게 하나 된 기독교 공동체의 모인이 유지되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회합을 열어서, 새로운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형식을 취해서, 장로교회의 노회와 같은 기능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정식으로 장로교회의 노회가 필라델피아에서 결성된 것은 초기 청교도들이 이미 회중교회 체제를 결성한 훨씬 후에 1706년에 회

집되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예배중심 생활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청교도들의 경건한 열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기존 국가교회 체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이었으므로, 로마 가톨릭의 주교정치와 장제를 완전히 털어냈다. 청교도들의 예배는 완전히 개혁교회의 모델로 구성되었다. 물론 아직 거대한 건물을 세우지 못했기에, 지방에서는 지역모임을 갖던 공회당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책상 하나를 앞에 두고서, 목회자가 진행하는 단순한 예배형태를 취했는데, 성찬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회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였을 뿐이다.

잉글랜드에서는 “공중기도서”에 나오는 대로 예배를 진행해야만 했는데, 청교도들은 그 일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뉴잉글랜드에서는 전혀 예배지침서가 없었다. 교회언약의 핵심은 엄격한 주일 성수로 실행되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은 언약백성이 시행할 조건들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인식되었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처럼 여전히 뉴잉글랜드에서도 중요한 경건의 요소였다.

설교는 목회자가 성경 한 장의 분량을 읽고 난 후, 그 본문을 토대로 강해를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회중교회들은 시편찬양을 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시간에 성도들의 간증을 발표하기도 했고,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을 허용하는 교회들도 있었다. 기도와 축도로 주일 오전예배가 폐회되었다.

오후예배에서는 회중들이 모여서

동일한 예배를 다시 드렸는데, 오후 예배에는 꼭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이 아니어도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했다. 오전예배는 멀리 떨어져 있던 교회에 나갔다가, 오후 예배시간에는 가까운 곳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오후예배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다시 모이도록 노력했다.

지금도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아침예배와 오후 다섯 시에 모이는 저녁예배를 출석하는 인원이 거의 동일하다. 필자는 그러한 청교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바쁜 세상에서 온전히 주일을 예배에만 집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일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신도가 설교하기도 했는데, 존 윈트롭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 보편적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신학수업을 하고,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온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설교를 전담했었다. 하지만, 목회자가 청빙과정에 있거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설교하는 권한을 허락 받은 평신도들이 대행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전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나눴다. 목회자가 기도를 드리고,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축복의 권면을 한 후에, 오직 회원 성도들에게만 나누주었다. 마치는 기도로 폐회되었다. 세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주로 시행했는데, 물을 뿌리거나 씻는 행위가 수반되었다. 유아세례의 경우에는 부모 중에서 한 쪽만 출석하는 교인이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시행되었으며, 로마 가톨릭처럼 영적인 부모대행 제도(god-parents)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준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린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조 바이든 “성소수자 권리 확대… ‘평등법’ 제정할 것”

모든 정부 문서에 ‘X’ 성별 표시 추가 계획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LGBT(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광범위한 공약”을 했다고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LGBT 활동가들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대부분의 제안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안한 의제는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허용하고,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군인이 여성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군인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 및 교차성 호르몬 투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모든 정부 계약자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국방부, 국가보안국과 기타 연방 기관에서 LGBT 권리 담당 직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캠페인의 웹사이트에는 이같은 의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성소수자)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이라는 문서가 수록됐다.

이 문서는 “평등법(Equality Act)

은 성소수자(LGBTQ+) 미국인을 위한 법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성소수자(LGBTQ+) 개인이 기존의 시민권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 할 것”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top legislative priority)로 강조해왔다.

한편 진보 진영을 포함한 많은 여성 운동 선수들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성으로 식별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생물학적 여성 운동 선수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된 평등법은 공화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소수자(LGBTQ+) 가정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 보호 기관이 연방 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방 계약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노동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Youtube/US Hub

및 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시민 지도자와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바이든 캠페인은 “미 국방부에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 확인 문서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정부 문서에 성별 표시를 ‘M’, ‘F’ 또는 ‘X’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한 트랜스젠더로 신원 확인된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선택한 성별 정체성에 해당하는 욕실, 라커룸 및 샤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침을 복원 할 것을 약속

했다.

바이든 캠페인의 정책 문서는 또한 ‘전환 요법’(conversion therapy) 관련 치료 및 상담을 금지할 것을 밝히며 이 요법이 “심히 해롭고 매우 비과학적이며 종종 트라우마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고 CP는 전했다.

바이든 캠페인의 LGBT 의제 대부분은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LGBT 행동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는 일련의 새로운 직책을 행정부에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직책은 국가 안보위원회에 ‘성소수자(LGBTQ+) 권리 담당자’이며 이 직책은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응집력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추진한다. 국무부에는 ‘성소수자(LGBTQ+) 인권 특별 특사’ 직책을 만들어 외교적 노력을 조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낙인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미국 대외원조 실시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에는 국제 성소수자(LGBTQ+)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특별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을 신설한다.

이미경 기자

미 오클라호마 주지사, 코로나 극복 위한 ‘금식의 날’ 선포

미국 오클라호마의 케빈 스티트(Kevin Stitt)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2월3일을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공화당 소속의 스티트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오클라호마인들은 항상 불확실의 시련과 계절을 지나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에 의지해 왔다”면서 “모든 신앙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오클라호마인들이 목요일에 나와 함께 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스티트는 “나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교회들과 신앙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클라호마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며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케빈 스티트(Kevin Stitt) 주지사 ©케빈 스티트 주지사 페이스북

스티트는 교회 및 타종교의 예배 당들이 취약한 성도들을 위해 계속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했다.

그는 이 본문이 “우리가 기도로 단결할 때 하나님께서

나, 이 주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은 없음을 일깨워 준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주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도와 금식의 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오클라호마 지역 일간지인 ‘탈사월드(Tulsa World)’에 따르면, 주지사는 지난달 16일 행정 기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주 정부 청사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고, 실내 식당 등에 대한 이용 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오클라호마 주 보건부에 따르면, 3일 오전까지 이 주에서 202,3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44명으로 50개 주 중 40위에 해당한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사이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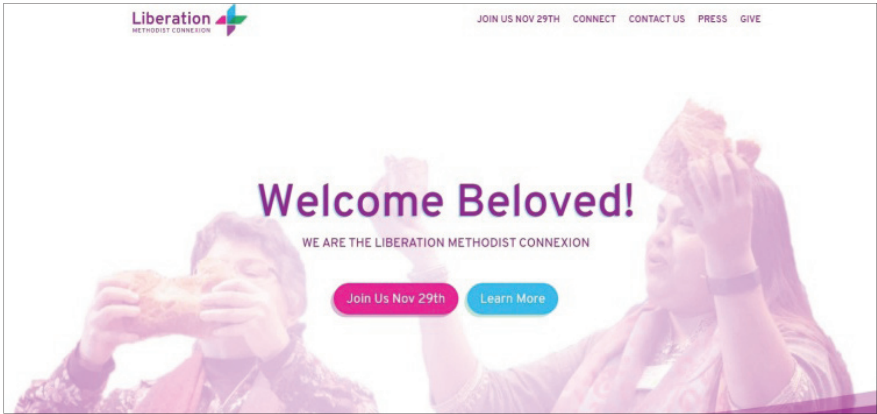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진보 감리교파, 동성애 지지하며 UMC 탈퇴...새 교단 결성



LMX 홈페이지 ©LMX

미국 진보 감리교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 교단을 탈퇴했다.

5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해방감리교회(LMX)'로 알려진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서 새로운 단체 창설을 발표했다.

LMX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kin-dom of God)'을 확장하는데 힘쓰는 전·현직 및 비 감리교 신앙 지도자들의 민중 교단"이라 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표현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환영하는 대상에는 모든 "성적 표현과 성 정체성",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배경"과 "인종과 민족", "규모", "일부 일체제 혹은 비일부일체제"까지 모두 포함한다.

LMX는 "우리는 감리교를 괴롭힌 권력의 불균형, 공권, 특권 - 식민주의, 백인우월주의, 경제적 부정적, 가부장제, 성차별주의, 성적주의, 장애인차별, 노인차별, 성전환자 혐오, 이성에 규범성을 반박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방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학과 관련해 LMX는 "신학은 돌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면서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롭고 창조적이며 자비롭고 세상을 창조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종사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합 감리교 신자인 마크 톨리(Mark Tooley) 종교민주연구소 회장은 LMX가 주요 세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톨리 목사는 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LMX는 신학적 다원주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정치적 활동과 정체성 정치에 찬성하며 신학적 교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단체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작은 틈새 운동으로 남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급진주의자들은 연합감리교 내에서 교단 구조의 남은 부분을 좌경화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난 몇 년간 연합감리교단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올해 초 보수와 교회들은 새로운 분파로 독립할 준비를 세웠으며, 진보파 교회들은 교단의 권징조례에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 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현재 UMC의 권징 조례는 동성애가 "기독교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히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UMC가 2021년에 열릴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두고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유진 기자

美 미시시피 주지사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신 분"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가 지난 3월 22일 미시시피 주 책상에서 녹화된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이며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테이트 리브스 페이스북

미시시피 주지사가 "종교 집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었다"면서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신 분이기에 때문에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 자유에 대해 감사하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이 권리를 수호하면서 예배 모임에 대한 뉴욕 주의 제한 명령을 차단했다. 팬데믹 기간 중 미시시피는 종교 모임과 예배를 결코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다. 자유롭게 당신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리브스 주지사의 발언은 대법원이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린 예배당에 대한 코로나19 제한 명령을 금지한다고 판결한 후 나온 것이라고 CP는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의 구성원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의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는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1천8명이 입원했다고 보고됐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된 후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것은 최후라고 현지 언론인 클레리온 렛저(Claron Ledger)가 보도했다.

주 보건 책임자인 토마스 홉스 박사는 "우리는 의료 시스템을 우려하고 있다. 입원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ICU 병상이 없는 12개의 주요 병원이 있다"라고 말했다.

리브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대규모 사고 모임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촉구했다. 1일 현재 미시시피주 82개 카운티 중 54개 카운티 주민들은 특정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리브스 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금쯤 위험한 시간이다. 우리 모두는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규모 사고 모임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담회차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신도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생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세우고 0.1만2세를목회하며, 이민가정을치료하며, 선교영광을준동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tdt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성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리셋에델민예배(소애펠)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산티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백마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월-토)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시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맹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금)
중보기도 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WEA 새 사무총장, "모든 기독교는 동일한 DNA"



세계복음동맹 새 사무총장 토마스 슈르마허 박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인신매매와 관련한 인권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Martin Warnecke

올해 세계복음동맹(WEA) 사무총장으로 새로 선출된 토마스 슈르마허(Thomas Schirmacher) 박사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오늘날 복음주의 세계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세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WEA 신학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신학적 차이, 재정 및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구권에서 복음주의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성경에 실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신앙을 떠난다고 설명했다.

슈르마허에 따르면 서구권에서 신앙을 떠난 젊은이들의 수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청년들로 상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종한 젊은 기독교인들을 또한 깊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며 "개종할 때 배웠던 성경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슈르마허는 주로 농촌 지역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나 리서치 그룹과 미국성경학회가 발표한 '2020년 성경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초부터 2020년까지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미국 성인의 수는 14%에서 9%로 떨어졌으며, 매일 성경을 읽는 비율도 10명 중 1명(9%)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연구한 10년 동안 사상 최저치다.

슈르마허는 인터뷰에서 "WEA는 결과 및 영향을 기반한 평가(outcome- and impact-based assessment)에 따른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훈련된 리더십이 부족한 교회의 위기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르마허는 또 이와 관련, "복음주의자들이 더 이상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 운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교황도 없고, 무엇을 믿든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구조도 없다"며 "우리는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며, 사역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WEA의 새로운 수장으로, 많은 종교의 자유를 제공하는 부유한 국가와 기독교 박해국가 간의 '훨씬 더 긴밀한 연대'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동안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교제해 왔다"며 "신앙인과의 연대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내 의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르마허는 또 세계적 기독교 단체인 WEA가 유엔 및 공공 문제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문제에 서서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연 중 한 명"이라고 표현했고, 이들이 항상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최전선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WEA는 선교, 전도, 종교의 자유를 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전도를위한 것"이라며 "현재 새롭게 기독교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나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로 기독교 내부의 분열을 꼽으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슈르마허는 "나는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DNA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싶고, 훨씬 더 많이 논의하고 싶다"며 "우리가 함께 가진 것은 성경, 예수, 그리고 복음서이며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싸우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슈르마허 박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사무총장직을 임기를 시작한다. 김유진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니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맹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찬양헌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맹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B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영성집회 오후 7:30 찬양 헌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수요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주요 영성회 목회 7:45
새벽기도회 5:30 / 토 오전 6:00
1954 Hinal St., Northridge, CA 91325
MP예배 588 Aliso Ave., Monterey Park, CA 91753
수요 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9:00
T. (618)935-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맹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맹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북한 기독교인들, 밤중 옥수수밭서 비밀 예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유튜브 '자유북한TV' 영상 캡처

북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건 비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Open Doors)를 인용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픈 도어스는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식지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북한에 구호물품과 복음 전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특히 북한 내부 기독교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비밀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는 북한 주민 13명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밤중 옥수수밭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소식지는 또 중국에서 북한 내부로 구호물품, 성경 등을 전달하고 있는 사역자의 인터뷰도 실었다고 RFA는 전했다. 오픈 도어스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세

계에서 가장 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북한은 오픈 도어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에 올랐다.

한편, 북한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지난 24일 개최한 17차 총회에서 영국 의회 대포로 참석된 데이비드 엘튼(David Alton) 상원의원은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과 이로 인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날 엘튼 의원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자행하는 종교적 박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영국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김재성 박사 은퇴...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교회 희망”



국내 대표적인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 김재성 박사가 은퇴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송경호 기자

국내 대표적인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안성삼) 부총장을 역임한 김재성 박사(조직신학)가 은퇴했다.

국제신대는 지난 1일, 2학기 종강예배를 김 박사의 은퇴식으로 진행했다. 학교 측은 당초 성대한 은퇴식을 계획했으나,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교무처장 여한구 교수의 사회로, 총무처장 우남식 교수의 기도과 안성삼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 박사가 그간의 소회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박사는 “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된다. 진보와 발전이 부족한 죄인의 모습임에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건강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특히 “국제신대에서 모든 분들과 평화롭고 은혜롭게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이는 사소한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학교마다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햇수로 10년, 만으로 9년간 부총장직을 주셔서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 참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거친 순수한 청교도 신앙이 평양신학교를 통해 내려왔다. 개혁신학을 함께 나누는 동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며 “얼마 전 후배 목회자가 한국교회가 해도해도 너무하다. 명예욕과 감투욕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걱정했다. 답은 다른 것이 없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물려준 젖줄을 따라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신학은 숫자적인 목회, 성공주의 목회야 아니다. 갈등과 목마름을 느낀 성도들, 진짜 기독교인이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개혁신학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 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확신과 꿈을 얻게 해 달라”고 전했다.

김 박사는 “성경 66권 중 전도서를 가장 좋아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아라’라는 말씀이 지혜자의 결론”이라며 “이는 후사라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합해 ‘경건’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박사는 개혁신학의 핵심을 집약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나라>, <언약사상>, <한국신앙의 탐구>, <기독교 개론> 다섯 권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서울시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기독교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특별시 종교의 자유 탄압행위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20. 11. 22. 수도권 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종교시설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책, 컵 등)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물품 사용하기,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공용물품(책, 컵 등) 비치 자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등 ‘원고 조치’를 하였다”며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은, 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한술 더 떠 ‘서울형 정밀 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당은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의 이러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순한 권고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이는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당은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권한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였지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했다.

이러 “서울시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공권력’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은 코로나19감염 우려를 이유를 공포정치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 즉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처분을 꾸준히 해왔다”며 “정부는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을 근거로 틈만 나면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을 빌미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이번 (공용) 성경과 찬송가 사용 금지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공용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금하는 조치를 하거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개인 손잡이’를 휴대하도록 조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말감염의 우려가 매우 큰 공용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서도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신앙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 덤벼들고 있다. 명백하게 정교분리에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한편, 기독교자유통일당은 “권한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직권남용죄로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지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으로 활을 삼려 새생명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는 새생명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V) 주일 9:00am 금요일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1부예배(EV) 주일 9:00am 금요일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디모데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청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믿음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올바른 결정을 선택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택과 결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본토친척 아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을 선택하여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순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본이 되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주님을 선택하였고, 주님 앞에서는 말씀을 따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드리고,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결정하므로 참된 믿음이 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집에서 명을 어김이 없이 일하는 착한 사람 같았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탕자가 살아 돌아와 기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아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먼저 맛디아를 제자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함께 하고 난 다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이 강림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아도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져있는 혼돈의 때일수록, 우리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순종을 결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스테이 앳 홈' 자택대피령을 내려 모든 모임과 대면수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코로나 19 대확산 사태가 심화되자 결국 주 전체적인 추가 봉쇄령 시행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막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까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하나님은 예텐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으로 범죄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나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노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로봇도 리모트 컨트롤(remote control)에 의해 움직여질 뿐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일상의 소중함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려하고 특별하지 않았습니. 그저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도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과 같이. 어제와 같이, 아주 심플하고 익숙한 동일한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상의 현장에서 모세는 떨기 나무 불꽃을 보게 되고, 불꽃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야! 모세야!"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가 거듭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도록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은 결코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서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세였고, 출세치 못해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자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합니다. 어제 먹었던 반찬이 오늘 식탁에 올라오면 남편들은 싫은 기색을 감추기 어렵고 동일한 아이템만을 고집하며 세일하는 가게들에게서 주부들은 발걸음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반복은 상당한 힘과 능력이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지름길에 '반복' 이상의 왕도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에 있어 장인(匠人)이 되고 전문가가 되게 위해서는 반복 하여 숙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일상(日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익숙하기에 무료하게도 여겨지고 드라이(dry)하게도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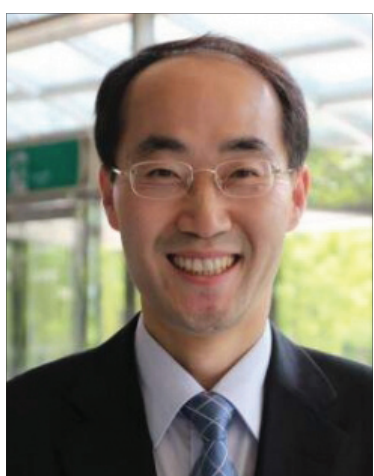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상은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등장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 이 삶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특별하고 장대하고 화려한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특별해 질수 없고 창해 하여 질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일하시고, 일상 중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뻘~한 하루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며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하루의 삶에 충실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일상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일상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참된 성도가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조직신학 구원론 분야는 구원의 필요성,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구원의 서정 (ordo salutis, order of salvation) 등을 다룬다. 구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인간본성의 전적타락과 무능력 그리고 인간이 처해있는 비참한 상태와 운명에 대해서 논의한다. 구원을 얻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오직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다룬다. 구원의 서정은 대체로 예정/선택 (predestination/election), 소명 (calling), 회심 (conversion), 중생 (regeneration), 연합 (union), 칭의 (justification), 양자 (adoption), 성화 (sanctification), 견인 (perseverance), 영화 (glorification) 등의 주제를 순서를 따라 논의한다. 물론 신학자 개인의 입장에 따라 중생이 믿음 앞에 오기도 하고, 칭의가 연합 앞에 오기도 하며, 예정에 대한 관점이 칼빈주의적 (Calvinistic)이거나 알미니안주의적 (Arminian)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구원의 서정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위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구원론 중에서도 견인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성도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번 회개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

주로 믿은 성도가 중간에 타락하거나 변절하여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은 영원히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개혁주의/칼빈주의의 관점은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으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once saved always saved)이라는 것이다. 반면 알미니안주의의 관점은 참된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타락하거나 변절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 지난 400여 년 동안 신학자들 간에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적 전통에서 있는 필자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중간에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믿는다. 이런 관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구절들 중에는 빌립보서 1장 6절이 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란 당연히 구원의 역사이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즉 온전히 완성하실 줄을 확신한다는 바울의 고백이다. 이런 구절을 읽고도 성도의 구원이 중간에 상실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일 수 밖에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로마서 8장에 나온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느니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은 로마서 8장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성화와 견인이다. 성령은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되기를 성부께 기도하신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은 성령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한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기도 역시 우리의 성화와 견인을 위한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결국 우리의 성화와 견인 즉 성도가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뿐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의 제 2위격이신 성자와 제 3위격이신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 성자가 성부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성부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심각한 내부모순과 내부균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 또한 각각의 세 위격이 의지적 기능 (volitional function)을 갖고 계시지만, 여전히 세 위격

은 항상 동일한 한 뜻 (one will)으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며, 그 응답의 결과는 성도들의 성화와 견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성도의 견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4-6절을 근거 구절로 내세운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큰 원리 즉 성도가 중간에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참되게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영적 감동이나 기쁨을 느낀 자들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사람들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또 이와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막 4:16-17). 즉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 받으나, 참된 믿음의 뿌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칭의함을 받는다. 이 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다. 물론 이 확정의 시점이 완성의 시점은 아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낙원으로 갈 때 영혼의 영화를 경험함으로, 그리고 주님 재림시 육신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뤄

진다.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 성도는 영원히 안전 (eternal security)하다. 그는 중간에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 물론 이 진리가 그들의 영적 태만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오해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의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회심과 칭의의 사건에서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성화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회심과 칭의의 사건에서 구원이 확정된 성도들은 그 구원의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work out) 살아가라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한번 확정하신 구원은 결코 폐기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혹시 어떤 신자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끝내 믿음을 저버리고 이 땅을 떠났다면 그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견인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보증은 없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점에 대해서 결코 혼란이나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목티슈
 목티슈
 목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교회 부흥을 위한 성령역사

에베소서 1:17-23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중략)...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

구약시대에 1600년에 걸쳐 많은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신적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죽어 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원계약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와 조명과 체험과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 성령에 대한 성경적 증거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17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하셨는데, 그 정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라고 해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영인데 누구의 영이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너 자신이 죄인임을 즉시 깨달아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역할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 보내기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에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내리니”라는 표현을 신학적 용어로는 ‘발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1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우리 한글성경에는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성경은 미국 성경 중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까운 영어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당시의 경건한 신학자들을 불러서 원문에 가장 충실한 성경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하늘에서 증거 하시는 이가 셋인데, “The Father”은 “그 아버지”, “The Word”는 “그 말씀”, “and the Holy Ghost”는 “그리고 그 성령”, “and these three are one”는 “그리고 이 셋은 곧 하나이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파테르(아버지)”, “로고스(말씀)”, “푸뉴마(영)”라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성령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스승은 성령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성령의 말하게 하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총만하게 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행 2:4)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대언자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고 마음에 찢려 “우리가 어찌 할꼬”(행 2:37)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빌라도를 강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라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날에 구원 얻은 숫자가 3천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로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학식, 기술, 지혜,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설계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남은 평생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길로 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의 신앙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의식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성과를 기대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과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엄청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내 지식이나 상식이나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혔을 뿐이기에 내게서 나타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디 가서 봉사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서 나타날 분

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낮추고 내게서 성령님만이 내 입에서 말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소망하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1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실 때에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 갈 백성 되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체험주시고 감동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세상문제에 낙심하거나, 어려운 형편으로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생활을 원하시는데,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보이려하시는데, 우리는 그 그릇에 세상 것을 채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기대하며, 자랑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믿음이 있다면 세상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게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For the Spirit & Body

LOLC Inc.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런>(上)

비혼 출산 사유리와 한국·미국 영화 속 '한부모 가정' 들의 변화

가정보다, 개인의 삶 우선시하는 시대정신 단란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정들 드러내 핵가족화 넘어 가족 해체되는 현실 반영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2018년작 <서치>(Searching)의 감독 아니쉬 차간티 감독의 신작, 서스펜스 영화 <런>(Run)은 가정의 붕괴가 가져오는 공포감과 좌절감을 담은 영화라 볼 수 있다.

서사에 커다란 반전이 있는 영화이지만, 반전이 드러나기 전 단란했던 모녀 가정이 무너져 가는 모습만으로도 현실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전체 가구 수 대비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아직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가정의 형태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과 남성 가장 중심 경제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인 6.8%를 밑도는 수준이다.

물론 한부모 가정의 절대 다수가 편모 가정이라는 점은 전 세계적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높은 이혼율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는 듯하다.

얼마 전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우려보다는 격려와 축하를 보냈는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여겨진다.

전 세계에서 한부모 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1위가 미국, 2위가 영국이다. 미국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23%, 영국의 경우 21% 수준이다.

미국은 네 가구 중 하나가, 영국은 다섯 가구 중 하나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높은 이혼율, 일반화된 미혼 동거, 가정보다 개인

을 중시하는 서구적 개인주의 문화가 겹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추세를 조금씩 따라가는 한국 역시 추후에는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가정 해체 풍조가 정착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거의 반세기 전부터 겪어왔던 문제를 한국은 202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한부모 가정에 얽힌 소재를 다룬 영화를 찾아보기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의 상황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은 대부분 세상에 돌만 남은 가족 사이의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삼아왔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1994), <식스 센스>(The Sixth Sense, 1999), <아이 엠 샘>(I am Sam, 2001),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 2006) 등이 대표적이다.

차간티 감독의 전작 <서치>만 하더라도, 아내와의 사별로 인해 혼자서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깊은 애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런데 할리우드에서 최근 들어 내놓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굵직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런 서사 공식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개봉해 흥행과 평단의 평가에 모두 성공한 영화 <조커>(Joker, 2019),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런>



한부모 가정 내부의 비밀을 주제로 삼은 영화 <런>

은 모두 한부모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초반 단란해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보일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는 세대가 영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이 부모의 애정으로 자녀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과 기만으로 자녀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곳이라는 점을 폭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개인의 가치 역전

현실의 모든 가정이 이상적일 수는 없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 만큼,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이 이리저리 뒤섞인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 관계에 결부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자칫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양방향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서로 절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애정의 끈끈함은 살아가는 데 커다란 힘을 주지만, 때로 이 절박함이 집착으로 굳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돌을 제외한 외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론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영화 <조커>와 <런>은 이런 역기능이 극대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괴한, 광기, 그리고 서스펜스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물론 두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은 사실상 친모가 아니면서 자녀를 속여온 비밀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 두 작품에 등장하는 가정은 매우 단란하고 화기에만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화목한 관계가 사실은 집착과 광기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한국에도 이런 문제를 소재 삼은 서스펜스 영화가 존재했다. 배우 최지우와 윤소정의 연기 케미가 돋보였던 영화 <울기미>(1997)는 편모 가정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혈투를 다룬 스릴러 영화이다.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을 구속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교훈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통상 서로 간의 애정의 깊이가 집착에 가까워 리만치 깊은 한부모 가정의 역기능적 사례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런 메시지가 영화를 통해 강조되는 추세는 핵가족화를 넘어 아예 가족의 해체를 향해 달려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미국 문화는 한국과는 다른 의미로 가정의 가치를 극구 강조해왔다. 한국 문화가 사회적 규격에 맞는 인격과 삶의 완성을 위해 가정의 가치를 중시를 강조해 왔다면, 미국에서는 인격 대 인격 간의 온전한 관계 형성을 통한 행복의 필수 요소로서 가정의 가치를 대단히 중시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서구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기독교 문화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가정 내부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표로 보았던 서구 기독교 문화는 온전한 부모-자녀 관계를 온전한 신앙의 한 증표라고 여겼다.

물론 이 온전한 관계는 존재적 질서를 인정하는 상하 관계와 함께 서로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수평적 신뢰관계가 함께 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런>에서 엿보이는 한부모 가정 내부의 진실 폭로, 그 깊은 애정 관계의 역기능적 성격에 대한 고발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양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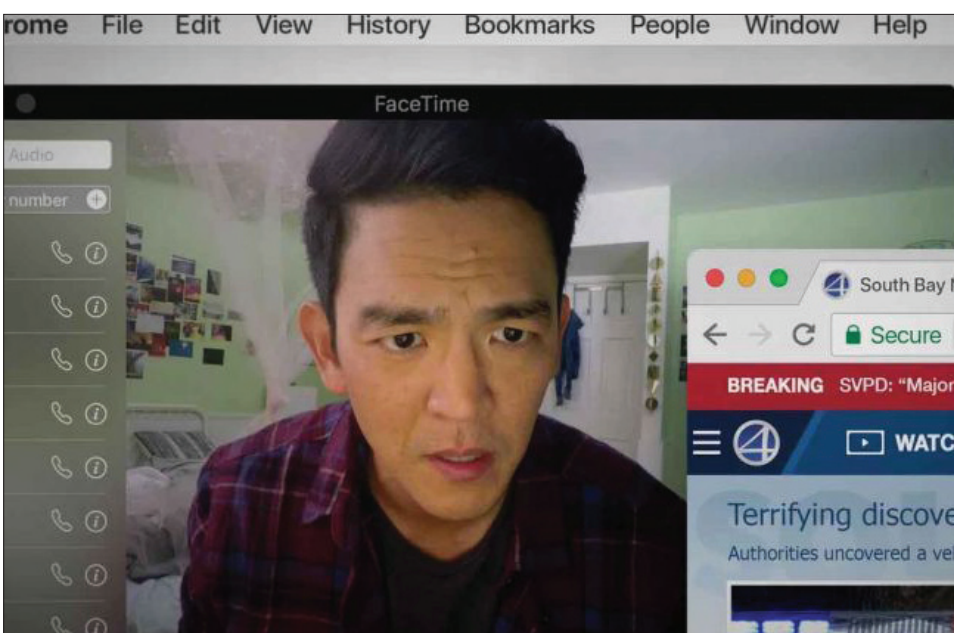
다시 말해 가정보다 먼저 개인의 삶을 앞세우는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는 무조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영화 <조커>. 한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 간 깊은 애정 가운데 숨은 문제점을 폭로한 작품이다.



차간티 감독의 전작 <서치>.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정을 그린 스릴러 영화로 역시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 <런>. 가정보다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는 세대를 반영하는 작품이라 평할 수 있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믿음과 표현**

평소 훈련하지 않으면, 말 잘할 확률은 거의 없다



말 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
최미영
천그루숲 | 232쪽

**표현하지 않는
실력은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이제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실력을
표현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말'로 잘 표현해야만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내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자 브랜딩인 거예요.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은 '말' 표현하지 않은 실력, 알아볼 수 없어 믿음 잘 표현하는 사람이 사랑 받아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말은 더욱 그렇다. 말은 공짜가 없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와 같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다.

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주고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한다.

때론 진심이 아니지만, 예의상 상대방을 칭찬할 때가 있다. 가짜 칭찬이지만, 상대방은 고마워한다. 말 한마디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말은 절대 공짜가 없다.

실력은 없고 말만 잘하는 것은 알미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말을 잘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힘들다.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은 말이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말'로 잘 표현해야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중요한 발표 자리,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중요한 순간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직장 상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웠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말하기가 경쟁력인 시대에 말 잘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특히 회사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한다.

저자 최미영은 LG그룹에서 10년 동안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했다. 저자는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이유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라고 말한다.

"회사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는 회사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회사에서의 '말하기'는 눈치껏 알아서 터득해야 하는 '개인'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말하기가 경쟁력인 시대

평소 일머리가 좋고 센스 있게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 그들은 '말'로 상사의 '마음'을 얻는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상사는 그들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

평소 훈련하지 않으면, 말을 잘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생각을 채우고 정리해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장, 논리적으로 말하면 설득력이 생긴다

생각을 말로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빠르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할 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다 펼쳐놓는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은 존중받지 못한다.

'무엇'을 '왜' 말하는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가지 질문을 점검하자.

- 1) 나는 상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 2) 그 말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 3) 상사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3장, 상황을 파악하면 일센스가 생긴다

상사와 대화는 편하지 않다. 그렇기에 TPO가 필요하다.

- T(Time): 상사가 내 말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 P(Place): 어떤 장소(규모)에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 O(Occasion): 상사에게 보고하기 적절한 상황인가?

동료를 보고 벤치마킹하자. 평가

받는 동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벤치마킹 과정이 없다면 동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4장, 확신 있게 말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에이미 커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몸을 크게 펼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꽤 높아진다고 한다.

시원한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목소리는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때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강력한 '의도'다.

5장, 목소리를 바꾸면 유능해 보인다

발음은 '메시지 전달'이라는 기본적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듣는 사람의 '몰입'이다. 발음을 정확히 하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가 집중할 수 있고, 잘 들리니까 구태여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돼서 더 오래 경청할 수 있다.

좋은 발음을 위해서는 입 모양을 정확히 만들고, 받침에 신경 쓰고, 첫 음에 힘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티브 잡스는 말 잘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전달할 가치가 있는 메시지를 온 힘을 다해 전달하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동선과 소품, PPT까지 열정적으로 준비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열정에 공감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표현하지 않은 실력은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누구든 말습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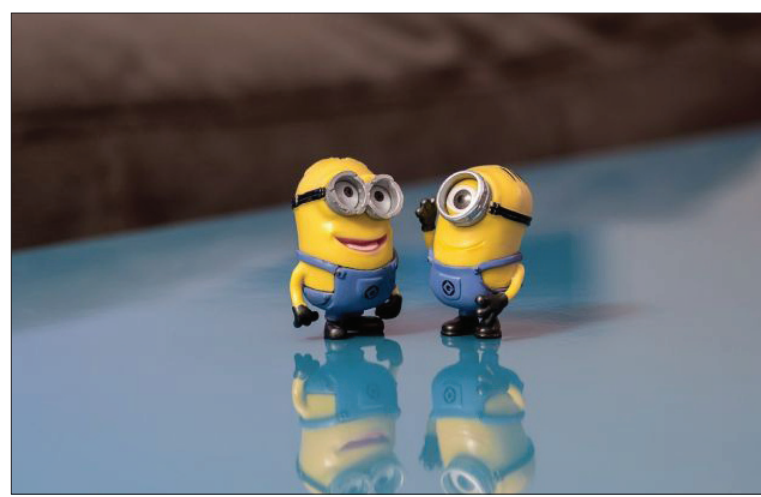
말을 못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말은 하는 것보다 잘 해야 한다. 잘 말하면 인정받는다. 말에는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직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표현해야 한다. 직장에서 배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정에서 사용하면 인정받는 남편, 아내, 인정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 말에는 공짜는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에서도 표현은 중요하다. 믿음을 잘 표현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받은 것을 잘 표현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아끼셨다.

좋은 말습관은 직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삶에 좋은 말습관이 필요하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좋은 말습관을 기르기를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픽사베이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열구리 통증(열풍)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경,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럽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팔고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자궁안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 손가락
- ✓ 발가락
-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 퇴행성 관절통증
-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4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199** +Tax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02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